

LG생명과학 울산공장 “방화관리 우수”

LG생명과학이 방화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울산 온산소방서는 2009년 방화관리 능력평가에서 LG생명과학 울산공장이 우수기업으로 뽑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고 1월5일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이 매년 실시하는 방화관리 능력평가는 화재시 위기 대처능력을 키우고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자체 종합 정밀점검을 면제받고 소방관서의 소방검사가 2년간 제외된다.

LG생명과학은 2급 방화관리 대상(1만㎡ 이하)으로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경영자의 재정지원 및 안전관리 관심도,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심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산공장 방화관리자 이상수 과장은 “앞으로도 예방과 실천만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근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06>